

대학, ‘강좌별 균등한 평균기준 적용’ 총학, ‘성적투명화제도’ 대안으로 제시

성적평가제도 변경 논란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성적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성적제도특위)’와 ‘학사제도개선 TF’에서 성적평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논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학본부와 학생대표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성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총장 주제로 지난달 4일 열린 합동교무위원 연찬회에서 제공된 자료집에 따르면, 2014학년도 학점관리분야 평가지표 조사결과 161개 대학 가운데 155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조개혁 평가뿐만 아니라 기타 대외평가, 외부에서 보는 우리학교의 학점신뢰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합동교무위원 연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좌 평균성적 B(3.0) 이하 가이드라인 적용의 규정화, ▲교수업적평가의 ‘교육영역’에 지도과목의 성적분포 항목 추가, ▲절대평가강좌 축소, ▲학점표준화제도, 재수강 취득성적제한, 학점포기제도폐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 “학점관리분야 전국 최하위 성적평가제도 개선 불가피”

성적제도특위 등에서 대학본부가 내놓은 ‘강좌별 균등한 평균기준 적용’안도 앞서 합동교무위원연찬회의 개선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성적평가제도가 ‘B+이상 40%’ 단일안인 만큼, 교·강사 간의 평가 준거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강좌별로 평균 점수의 편차가 커진다는 것이 학사지원과의 입장이다. 결국 지금의 성적평가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편중평균 차이와 과목선택에 따른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총학 측은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성적평가 협조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학본부 측의 개선안은 대학교조개혁평가에 대해 의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런 대학본부의 움직임은 대학교조개혁평가 중 ‘구성원들과의

《2014년 경쟁대학 성적분포현황 및 성적분포지수》						
학교명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성적분포지수
경희대	0.43	0.40	0.11	0.03	0.04	0.31
고려대	0.40	0.35	0.18	0.03	0.04	0.35
서울대	0.50	0.33	0.14	0.02	0.01	0.28
성균관대	0.36	0.36	0.20	0.03	0.05	0.38
연세대	0.41	0.35	0.19	0.03	0.02	0.34
중앙대	0.37	0.37	0.19	0.04	0.03	0.37
한양대	0.46	0.31	0.15	0.03	0.06	0.33

※성적분포지수가 낮을수록 학점인플레가 심하다.

학교명	성적평가제도
경희대	평가방법: B+ 이상 40% 이내 상대평가제외과목: 영어강의,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직과목, 군사학과목, 실협/실습/실기과목
고려대	기본과목: A: 35% 이내/B 이상: 70% 이내/C+ 이하: 30% 이상실협, 실습, 교직, 외국어, 강의과목, 교양외국어과목: A+, A: 40% 이내/B 이상: 90% 이내/C+ 이상: 10 이상
성균관대	기본적용: A: 30% 이내/B 이상: 65% 이내 전공실습과목: A: 40% 이내/B 이상 75% 이내
연세대	2명 이상수강강좌: A: 35% 이내/B: 35% 이내 20명 이하수강강좌: A: 40% 이내/B: 50% 이내
중앙대	기본적용: A: 0~35%/B 이상: 0~70%/D+ 이하: 5% 이상원어강의, 교직, 군사학, 실기 및 실험실습강의: A: 50% 이내/B 이상: 90% 이내
한양대	A: 30% 이내/B 이상: 70% 이내/C 이하: 30% 이상

합의’, ‘전공과 학문별 다양한 평가 기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캠퍼스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강의에 일률적인 평가를 강요함으로써 과목들의 평가가 획일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성적평가 제도 변경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사항, 장학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절대평가과목의 정비와 평가기준 지정’안도 제시했다. 이 제도는 현재 절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성적평가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강좌가 많다”며 “평가제도가 형평성 있게 유지된다 해도 실험·실습·실기 과목이 존재하는 학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과목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지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대표 측은 절대평가가 필수적인 과목들도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대학의 경우 오케스트라 수업이 상대평가 될 경우 학생들 전체가 같이 연주하는 수업인 만큼 출석이나 과제 등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성취도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본부의 개선안 대신 양 캠퍼스 총학은 ‘성적투명화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성적투명화제도’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중간·기말고사, 레포트, 발표 등의 성적산출 요소들의 점수를 미리 공개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당 학점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양 캠퍼스 총학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상대평가제도에서도

A+와 B0로로 학점이 쏠리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성적의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캠퍼스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절대평가에 대해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수업’ 정도로 오해해 낮은 성적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절대평가 수업에서도 평가 기준을 바로 세워 학생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캠퍼스 총학, “성적투명화제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라”

그러나 ‘성적투명화제도’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된다. 대형강의로 성적 평가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 수업, 수치화 된 평가가 불가능한 수업 등은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학과별로 상이한 전공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성적투명화제도에 대해 A교수는 “서술형 시험은 수치화된 평가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시험도 객관식으로 내야하고, 레포트도 퀴즈 등으로 대체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B교수 역시 “결국 점수를 매기기 위한 강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현재 이런 부작용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회의에서 더 많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역시 이번 성적제도 관련 논의가 단순히 ‘평가를 위함’이 아닌 학생을 위한 성적제도 마련에 있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용화 과장은 “학점인플레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불이익, 혹은 내부 학생들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며 “학생들의 성적을 낮추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의 경우 성적제도에 관해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설문은 대학본부 측에서 내놓은 ‘강좌별 평균 조정’안 및 ‘절대평가과목의 정비와 평가기준 지정’안과 함께 서울캠퍼스 총학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성적투명화제도’에 대한 설명이 실리며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도 조사될 예정이다.

‘성적분포 적절성’ 평가지표에서 제외 영향은 제한적

대학교조개혁 평가지표 변경

백승철기자 scho1357@khu.ac.kr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대학교조개혁 평가지표 중 하나였던 ‘성적분포의 적절성’의 부작용이 심각해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적분포의 적절성’ 평가지표에 배정된 1점을 ‘엄정한 성적부여를 위한 제도운영’에 통합해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우리학교가 불리한 성적평가 관련 지표가 여전히 ‘학사관리 항목’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대학교조개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엄정한 성적부여를 위한 제도운영’은 학생의 학업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합리적인 성적부여 기준(상대·절대평가)’과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재수강 신청 가능 요건, 재수강 시 부여되는 성적범위등)과 학사경고 부여 등의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를 정성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성적부여에서도 ‘B+, 40%’를 하나로 상대적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재수강 신청 요건 역시 타대학에 비해 제한이 적다. 현재 우리학교의 재수강 신청 요건은 B-이하를 받은 과목에 대해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한 상태며, 재수강시 취득학점 제한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중앙대는 현재 C+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재수강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은 A0학점이다. 또 재수강 횟수는 재학 중 3회로 제한되고 재수강을 한 과목은 성적표에 따로 표기가 된다. 연세대로 마찬가지로 현재 C+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재수강을 허용하며,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 또한 A0학점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성적분포의 적절성 항목이 제외됐지만 대학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성적평가제도에서 다른방향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조개혁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취업컨텐츠 솔루션

- ✔ 직무적성검사 모의테스트 (공기업 포함 25개 기업 이상)
- ✔ 무제한 서비스 이용 (모바일, 태블릿 지원)
- ✔ No.1 취업커뮤니티(DALUM 취업포개기)를 비롯한 취업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 수시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입니다.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컨텐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경로 (이용방법)

①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career.khu.ac.kr>) 로그인

② 화면 중간부준 [온라인 취업솔루션] 배너 클릭

컨텐츠 안내

step 1.
취업준비

Report

취업전략리포트
채용설명회 및학취재
기업별 직무사전

step 2.
서류전형

Report

합격자 자기소개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합격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500자 자소서 27가지 법칙

step 3.
직무적성검사

E-test

주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기타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공사/공기업 직무적성검사

step 4.
면접

Report

면접 가이드북
면접질문 베스트

Video

대한민국 지원 산업군
지원직무 분석
전자공시 기업분석
성공 취업스터디 운영전략
금융권 필수 강의
[금융권] 마음먹고 준비
[금융권] 단계별 핵심공략
[금융권] 자소서 공략

Video

합격자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
역량항목 작성하기
실매경험 선정 및 작성
합격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500자 자소서 27가지 법칙

Video

상성그룹(SSAT) 유형분석
SSAT 수리심화(응용계산)
SSAT 수리심화(자료해석)
대기업 통합적성검사
SK종합적성검사 유형분석
두산그룹(DCA) 유형분석
현대자동차그룹 유형분석
CJ그룹(CJ CAT) 유형분석
금융권 직무적성검사 특강

Video

1분 스피치(금융권)
1분 스피치(가솔영업)
1분 자기소개 전략
면접의 종류 및 유형 준비
인성면접 단골질문
토론면접 Q&A
임원면접 A to Z
이미지컨설팅 - 면접의상
이미지컨설팅 - 면접매너
이미지컨설팅 - 면접스피치
성공면접 노하우
사로잡는 면접화법

cover

우수 중견/중소기업 정보
합격자 성공스토리
오후의 직장인 인터뷰
1000대기업정보

cover

자기소개서 명면접
기업별 자기소개서 항목

cover

직무적성검사 후기
직무적성검사 학습자료

cover

면접 후기